

# PK 실점·GK 실책...한국 16강 '먹구름'



25일 호주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한국 대 콜롬비아 경기. 골키퍼 윤영글이 콜롬비아 공격수 카이세도의 슛을 체내러했으나 불이 손을 맞고 골대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월드컵 첫 경기에서 콜롬비아에 달미를 잡혀 16강 도전의 험로를 예고했다. 폴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대표팀(FIFA 랭킹 17위)은 25일 호주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콜롬비아(FIFA 랭킹 25위)에 전반 연속 실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0-2로 졌다. 한국은 전날 모로코를 6-0으로 완파한 독일(승점 3·골 득실 +6), 이날 승리한 콜롬비아(승점 3·골 득실 +2)에 이어 조 3위(승점 0·골 득실 -2)에 자리했다. 이번 대회에선 조별리그 각 조 2위까지

## 여자 축구대표팀 H조 1차전 콜롬비아에 0-2 '달미' 30일 모로코전서 꼭 이겨야

16강에 진출한다. 네 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한국 여자 축구는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무득점 전패'라는 불명예 기록을 이어갔다. 처음 나선 2003년 미국 대회 때 한국은 브라질과의 1차전에서 0-3으로 진 뒤 프랑스, 노르웨이에도 연패하며 탈락했다. 2015년 캐나다 대회 땀 16강 진출에 성공했으나 1차전에서 브라질에 0-2로 패한 바 있다. 이후 2차

전에서 코스타리카와 2-2로 비겨 첫 승점을 획득했고, 3차전에선 스페인을 2-1로 잡아 첫 16강 진출을 이뤘다. 직전 2019년 프랑스 대회 땀 프랑스, 나이지리아, 노르웨이에 모두 지며 탈락한 한국은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인 벨 감독 체제에서 4년을 절치부신 해 준비했으나 분수령으로 여겨진 콜롬비아전을 내주며 남은 두 경기 부담이 커졌다. 한국은 30일 오후 1시 30분 모로코와 2차전에 나선다. 한국은 초반 활발한 공격을 펼쳤다. 한국은 전반 28분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다.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날아든 마누엘라 바네가스의 슛을 막는 과정에서 심서연의 핸드볼 파울이 지적돼 페널티킥이 선언되고 엘로카드가 나왔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카탈리나 우스메가 원발로 낮게 깔아 찬 슛이 들어가며 콜롬비아의 선제 결승골이 됐다. 전반 39분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뛰는 콜롬비아의 2005년생 '신성' 린다 카이세도에게 한 골을 더 얻어맞았다. 왼쪽 측면을 돌파하는 카이세도를 막지 못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슈팅을 허용했고, 그의 오른발 슛을 골키퍼 윤영글이 손으로 쳤으나 공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불운 섞인 연속 실점을 기록한 한국은 10분이나 주어진 전반 추가 시간 중 9분쯤 흘렀을 때 페널티 지역 왼쪽 최우리의 절묘한 킥백에 이은 이금민의 헤더가 골키퍼에게 막히며 절호의 만회 골 기회를 날린 채 전반을 마무리했다. 후반 들어 이금민을 최전방으로 전진 배치하고

라인을 끌어올려 만회 골을 노렸으나 체력과 힘이 뛰어난 마이라 라미레스를 앞세운 굼직한 콜롬비아 공격에 고전을 이어갔다. 후반 16분엔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우스메의 크로스에 이은 라미레스의 헤더가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가며 한국 선수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좀처럼 흐름을 바꾸지 못하던 한국은 후반 23분 순화연과 조소현을 빼고 베테랑 장신 공격수 박은선(서울시청)과 스피드가 좋은 강채림(현대제철)을 투입해 공격 변화를 꾀했다. 이날 한국은 점유율 30%로 콜롬비아(38%·경합 32%)에 밀렸고, 슈팅도 콜롬비아(17개)보다 훨씬 적은 5개만 기록했다. 유효 슈팅 수도 3대5로 밀렸다. /연합뉴스

## 16세 26일 케이시 유진 페어, 월드컵 최연소 데뷔

국가대표 '혼혈 선수 1호' 역대 월드컵 본선 사상 남녀 통틀어 최연소 출전



케이시 유진 페어가 25일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한국 대 콜롬비아 경기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케이시 유진 페어(PDA)가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사상 남녀를 통틀어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 25일 호주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H조 1차전 콜롬비아와 경기에 0-2로 졌다. 폴린 벨(잉글랜드) 감독은 우리나라가 0-2로 끌려가던 후반 33분에 최우리(인천 현대제철) 대신 페어를 투입해 변화를 꾀했다. 2007년 6월생으로 만 16세인 페어는 이날 경기에 나와 역대 월드컵 본선 사상 남녀를 통틀어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다. 여자월드컵 본선 최연소 출전 중전 기록은 1999년 미국 대회에 16세 34일의 나이로 출전한 이페아니 치에진이였다. 페어는 2007년 6월 29일 생이라 이날이 16세 26일이다. 또 남자 월드컵 본선 최연소 출전 기록은 1982년 스페인 대회에서 17세 40일로 댄 노먼 화이트 사이드(북아일랜드)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페어는 178cm 큰 키에 17세 이하 국가대표 경력을 지닌 유망주다. 특히 이번 대회에 출전한 32개국 선수를 통틀어서도 최연소임을 고려하면 페어의 여자 월드컵 본선 최연소 출전 기록은 한동안 깨지지 않게 됐다. 페어는 이날 후반 추가 시간 5분을 더해 약 17분 정도 뛰었다. 공격에서는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월드컵 본선 데뷔전에서 주축 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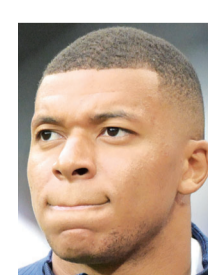
## 양현준·권혁규 셀틱 입단...오현규와 '한국 트리오'

국내 프로축구 K리그에서 활약하던 공격수 양현준(21)과 미드필더 권혁규(22)가 나란히 스코틀랜드 명문 구단 셀틱 유니폼을 입었다. 셀틱 구단은 24일(현지시간) 양현준과 권혁규의 영입을 발표했다. 두 선수 모두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이적료는 셀틱에서 공개하지 않았으나 양현준의 경우 전 소속팀인 K리그 강원FC에서 앞서 이적을 발표하며 250만 유로(약 35억4000만원)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혁규는 100만 유로(약 14억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셀틱엔 올해 1월 K리그1 수원 삼성에서 옮겨 간 공격수 오현규(22)가 이미 활약하고 있으며 양현준과 권혁규가 가세해 이번 시즌 세 명의 한국 선수가 함께하게 됐다. 2021시즌 강원에서 프로 데뷔한 양현준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36경기에서 8골 4도움을 올리며 강원원의 핵심 공격수로 맹활약했다. 지난해 7월 토트넘(잉글랜드)의 방한 경기에 팀 K리그의 일원으로 나서 번뜩이는 모습으로 팬들의 주목을 받았고, 지난해 말엔 K리그1과 대한축구협회 영플레이어상을 휩쓰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이번 시즌엔 이적에 앞서 리그 21경기에 출전해 1골 1도움을 올렸다. K리그2 부산 아이파크 유스 출신인 권혁규는 군복무를 위해 김천상무에서 땀을 흘리며 2019년 K리그 데뷔 이후 부산에서만 뛰었다. K리그 통산 기록은 76경기 3골 2도움이다. 연령별 대표를 두루 거친 그는 좋은 체격과 빠른 발을 바탕으로 받기술도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권혁규는 부산 유스 출신으로 부산에서 유럽 무대에 진출한 첫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 사우디 알 힐랄, 음바페 이적료 4260억원 제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자구단' 알 힐랄이 파리 생제르맹(PSG)에 '계약 연장 거부'를 선언한 킬리안 음바페(24)의 이적료로 무려 3억 유로(약 4260억원)를 제시했다. 더애슬레틱은 25일(한국시간) "PSG가 알 힐랄로부터 음바페의 이적료로 3억 유로를 제안받았다"라며 "PSG는 알 힐랄이 음바페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보도했다. ESPN 역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를 놓친 알 힐랄이 24일 음바페 영입에 3억 유로의 기록적인 이적료를 제안했다"라며 "PSG도 알 힐랄이 음바페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음바페는 제안에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적 전문가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자신의 트위터에 "알 힐랄이 음바페 영입을 위한 공식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PSG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넣었다. 이적료는 역대 최고액인 3억 유로"라고 거들었다.



음바페

음바페는 PSG와 계약 만료를 1년 앞둔 지난 6월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거부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음바페는 내년 6월 계약이 끝난 이후 이적료 없는 '자유계약(F.A) 신분'으로 새로운 동지구를 찾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9월 음바페를 AS모나코에서 데려오면서 1억8000만 유로(약 2556억원)의 이적료를 지불했던 PSG는 자칫 이적료 없는 FA 신분이 음바페를 내줄 수 있는 상황에 몰렸다. 음바페의 계약 연장 불가 선언에 PSG는 음바페가 이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미리 입단에 합의했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 /연합뉴스